강풍·호우 피해 속출

광주·전남, 낚시꾼 익사·피서객 고립·농경지 침수

지난 28일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진데 이어 29일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전남 대부분 지역은 이틀 동안 100~200㎜의 폭우로 인해 낚시꾼이 하천에 빠져 숨지거나 피서객이 계곡에 고립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농경지와 주택가 침수 피해도 이어졌다.

29일 오후 4시께 완도군 군외면 수목원 입구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김모(15·중2)군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연일 내린 비로 계곡이 물이 깊어져 김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8일 오후 2시께 영광군 백수읍 지산대교 인근 하천에서 낚시하던 오모(59)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오씨가 물에 빠진 낚싯대를 건지려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께에는 구례군 간전면 중대리 백운산 계곡 인근에서 피서객 손모(26)씨 등 2명이 불어난 물에 계곡에 고립됐다가 1시간여 만에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장흥군 장동·장평·안양면 일대에서는 농경지 10ha가량이 일시 침수됐으며, 장평면에서는 주택 8채가 방까지 물이 차는 피해를 봤다. 이밖에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서는 가로수가 단독주택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광주시 북구 청풍동 일부 도로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담양군 대전면에서는 전봇대가 쓰러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장흥댐 수위가 급상승함에 따라 댐 수위조절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은 29일 오후 3시부터 장흥댐 방류에 들어갔다. 29일 오후 5시 현재 초당 50t을 방류하고 있으며, 30일에도 최대 초당 100t 가량을 방류할 계획이다.

2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전날부터 내린 비의 양은 보성 225㎜, 화순군 이양 187.5㎜, 장흥 149㎜, 화순 122㎜, 강진 115.5㎜, 완도 115㎜, 해남 111㎜, 순천 110.5㎜, 광주 46.5㎜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30일 광주·전남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모형 F1 경주 '전국 초·중·고·대학생 모형 F1 자동차경주대회'가 29일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전국 60개팀, 2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 개최 기원을 위한 것으로, 가장 빠른 자동차부문과 최고엔지니어부문 등으로 나눠 실력을 겨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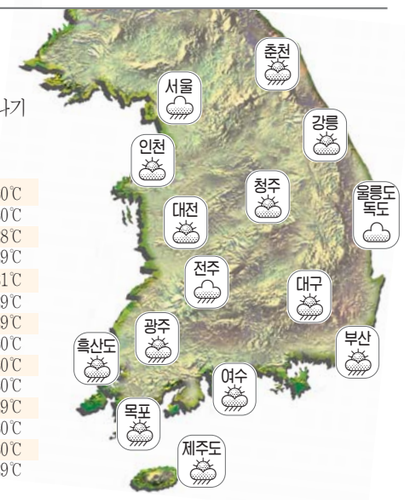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3분 해짐 19시 03분 달뜸 21시 31분 달짐 10시 59분

소나기

오후에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광 주	오후 한때 비	24/30℃
목 포	오후 한때 비	24/30℃
여 수	오후 한때 비	25/28℃
완 도	오후 한때 비	24/29℃
구 례	오후 한때 비	23/31℃
해 남	오후 한때 비	24/29℃
장 흥	오후 한때 비	24/29℃
고 흥	오후 한때 비	23/30℃
순 천	오후 한때 비	24/30℃
영 광	오후 한때 비	24/30℃
진 도	오후 한때 비	24/29℃
전 주	오후 한때 비	24/30℃
남 원	오후 한때 비	22/30℃
흑산도	오후 한때 비	23/2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5:04 17:37	10:13 22:37
여수	11:50 23:45	05:29 17:4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1(화)	9/1(수)	2(목)	3(금)	4(토)	5(일)
날 씨						
최저/최고	24/29	24/29	24/30	25/32	25/32	24/31

'교육위원회' 19년만에 역사속으로

31일 일괄폐원

시도의회 교육위 대체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위원회가 1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주요 교육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청의 행정 전반을 감시해 온 광주시교육위와 전남도 교육위는 지난 25일 각각 폐원식을 가졌으며, 전국의 교육위도 오는 31일자로 일괄 폐원한다.

교육위가 소멸하는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0년 8월31일 자로 교육위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법은 교육위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각 시·도 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상임위원회를 기존 시의원과 주민 직선 교육의원으로 구성토록 바꿔 시의회와 교육위 기능을 한데 통합했다.

교육위는 1991년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함께 탄생했다. 당시 공포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종전까지 교육청 내 기구 형태로 존재하던 교육위가 의결기관 형태로 교육청과 분리 독립했던 것이다.

교육위는 주로 교장이나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잘 아는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 지역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한때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되거나 무용론마저 등장하기도 했다.

교육위는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과 예·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과 보조기관, 하부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교육위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부적절한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매번 선거에서 잡음이 불거지면서 주기적으로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은 다시 시도의회를 거쳐야 해 교육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입 수시·정시 상담

1600-1615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2011학년도 대입 수시·정시 모집에 대비한 '대입상담콜센터(1600-1615)'를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대입상담콜센터는 시도 교육청별로 전문교사 20명 안팎을 위촉해 전국에서 총 320명이 상담에 응한다. 콜센터는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연중 상시 운영되며, 수시와 정시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8월 말부터 12월까지는 상담 시간을 늘려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연합뉴스

법원, '조선대동창회' 명칭 사용 금지

'조선대학교 총동창회'가 법적·행정적 적통(嫡統)을 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단체 명칭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도 인정받았다.

조선대는 29일 총동창회(회장 신흥수)가 옛 경영진측 인사인 조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조선대동창회'와 회장·이사장·사무국장 등의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최근 '총동창회'가 적통을 이어받은 동창회로 인정된 만큼 옛 경영진측의 동창회 명칭 사용과 이 명칭으로 한 총회·이사회 등의 개최 금지, 보도자료 발표와 홈페이지 운영 불가 등을 결정했다.

법원은 또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총동창회에 지급하도록 했다.

박 전 총장 일가 등 옛 경영진측은 지난 2002년부터 '조선대동창회' 명칭을 사용하며 현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을 해왔던 만큼 향후 검찰 수사나 이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